

< 강의 일정표 >

	8월 23일(월요일)	8월 24일(화요일)
오 전	<p>10:00-11:00 등록 및 숙소배정</p> <p>11:00-11:30 개회예배 (설교: 김두범 총무)</p> <p>11:30-12:00 오리엔테이션</p>	<p>7:00-8:00 아침기도회</p> <p>8:00-9:30 아침식사</p> <p>9:30-12:00 TOUCH 4 * 선택강의 1. ACTS 29. 사도행전적인 청소년교회를 구축하라 (김신곤 목사) 2. 청소년 제자훈련 이야기 (최세현 목사) 3. 영종등대 청소년사역 부흥기 (김선국 전도사)</p>
오 후	<p>12:00-1:00 점심시간</p> <p>1:00-2:50 TOUCH 1 * 전체특강: VISION IMPACT (박현우 대표)</p> <p>2:50-3:30 조별나눔 및 발표</p> <p>3:30-3:40 Break Time</p> <p>3:40-5:20 TOUCH 2 * 청소년 사역의 틀 세우기 (김종석 목사)</p> <p>5:20-6:00 조별나눔 및 발표</p> <p>6:00-7:30 저녁식사</p> <p>7:30-10:00 TOUCH 3 * 청소년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문대식 목사)</p> <p>10:00-11:00 조별모임</p>	<p>12:00-1:30 점심시간</p> <p>1:30-3:00 TOUCH 5 * 전체토론, Q&A (진행: 이충섭 목사)</p> <p>3:00-3:30 폐회예배</p>

목 차

TOUCH 1. VISION IMPACT

박현우 대표 (이노버스)

TOUCH 2. 청소년 사역의 틀 세우기

김종석 목사 (성림교회)

TOUCH 3. 청소년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문대식 목사 (늘기쁜교회)

TOUCH 4. (선택강의)

1) ACTS 29. 사도행전적인 청소년교회를 구축하라

김신곤 목사 (바로그교회)

2) 청소년 제자훈련 이야기

최세헌 목사 (베다니교회)

3) 영종등대 청소년사역 부흥기

김선국 전도사 (영등포중앙교회)

TOUCH 5. 전체토론 및 Q&A

진행: 이충섭 목사 (승리교회)

TOUCH 1.

VISION IMPACT

강사: 박현우 CEO

(이노버스 대표이사, 미디어포스 마케팅/컨설팅 본부장)

TOUCH 2.

청소년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강사: 문대식 목사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E-mail: mo777on@hanmail.net

I. 사랑

A. 설교자의 기본

1. 성경용어사전과 기독교서적, 주석서 등을 참고하라.
2. TV와 신문 등으로 시대를 읽어라.
3. 연구를 계속하고, 모방하라.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지도 마라. '배운다'의 히브리어 말은 '라마드'인데, 이것은 또 '가르친다'는 말과 똑같이 쓰인다. 결국 배우려고 하는 자는 계속 가르쳐야 하고, 또 가르치는 자는 계속 배워야 하고 배워야만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다.
 - (1) (딤후 4:13)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4. 잘 할 때까지 계속 설교하라.
 - (2)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 (3) (갈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5.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삶에서 지혜를 얻으라.
6. 자신의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을 설교하고, 삶으로 그 설교를 입증하라. 설교자는 인격을 신격으로 높여야 한다.
7.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며 설명하는 설교자를 사용하신다.
8. 설교자는 타고나고(예정), 구하는(노력), 경건한 자(관리)이다.
9. '기도'와 '열정'은 가르치는 자의 기본.
10. 오직 설교(말씀을 가르침)가 청중을 살린다.
 - (4) (시 119:50)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 (5) (고전 14:19)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 (6) (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 (7) (엡 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 (8) (시 119:9)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 (9) (롬 10:14)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1.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B. 유능한 설교자

1. 준비와 연습을 하라(완전 소화).
2. 메모광이 되라.
3. 평소에 실력을 쌓아두어라.
4. 사람 다루는 센스를 키워라. 그 대상과 늘 같이 지내려고 하고, 화술 책을 읽고 웃기는 사람과 친해라.
5. 상담과 언어, 심리학에 대한 연구를 하라.
6. 자신만의 설교(공과)노트 작성법을 가져라.
7. 구원론, 성령론 등의 신학적 지식과 설명의 기술의 가져라. 설교자에게 지식은 아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지식이다.
8. 컴퓨터, 인터넷, 책 등 많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 (10) (단 12: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 성령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라. 주석에만 의지해서 설교하는 것은 여행을 책으로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주석을 보지 않고 설교하는 것 또한 가이드북 없이 고생하는 것과 같다. 가이드북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나의 여행에 도움이 될 것들을 적은 것뿐이다. 지도 이상의 네비게이션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라.

II. 기술

A. 하지 말아야 할 것

1. 설교를 혼자 줄줄 읽지 마라.
2. 확신이 없는 것과 애매한 것과 쓸데없는 생각은 아예 설교하지 마라.
3. 개인적 비난이 아닌 사회적 비판을 하라.
4. 암기, 내용기억, 성구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고기를 잡게 하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5. 설교자의 입장을 구걸하거나 수고한 것을 너무 티내지 마라. 재밌고 유익하면 듣지 말래도 듣는다.
6. 한 교훈을 너무 길게 말하지 마라.

7. 번호를 매기거나 시간을 정해서 설교하지 마라. 시간은 지루해하기 직전만큼의 시간을 강의하고 매주 일정하게 하되 눈치 못 채게 최대한 늘려라. 쉬었다가 하거나 중간에 재미있는 것을 하면 그만큼을 또 강의할 수 있다.
8. 자기만의 생각, 사상이나 신념을 강요하지 마라.

B. 해야 할 것

1. 청중의 눈빛을 보고 지루해하면 분위기를 바꾸던가 아니면 빨리 끝내라.
2. 성경의 말씀과 단어의 뜻을 풀어줘라.
3.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끝내도록 하라.
 - 시작이 중요한 만큼 마무리가 50% 중요
4. 배울 본문 성경구절을 짧게 잡아라.
5. 도전을 주는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성공사례 등을 많이 들려줘라.
6. 어려워하고 궁금해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라.
7. 오래된 이야기를 버리고 새로운 것, 최근의 이야기를 하라.
8. 비유와 예화를 가장 적절할 때 이용하라. 성경은 주교재지만 부교재로는 다양한 문화를 (텔레비전, 영화, 신문, 스포츠, 음악 등) 이용하라. 예화를 학생들의 실생활 이야기나, 주변 이야기에서 찾는다.
9. 언어와 일반상식을 함께 언급하고 가르치라.
10. 교훈과 행동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라.
11.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중요 성구를 외워라.
12. 처음에 집중을 시키고 기대하게 하며 기선을 잡아라.
13. 질문을 받지 말고 대화식 설교를 하라.
14. 몸을 이용하고 때때로 과장되게 묘사하라.
15. 호기심을 자극하는 궁금증을 유발시켜라.
16. 응용력을 길러줘라.
17. 열거법을 이용하라.
18. 단어 연상법을 이용하라.
19. 암기를 도와줘라.
 - 나) (약 2: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20. 시선과 표정에 신경쓰라.
21. 학생들 이름을 기억해 자주 호명하고, 예를 들 때 그 친구로 들되 상처 주는 사실적 예는 들지 마라.
22. 상상의 날개를 펴서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고 실감나게 들려줘라. 성경은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위한 역사책이 아니라, 구원과 상급 받는 삶을 위한 진리에 대한 설명서이다.
23. '은혜 체험'이라는 목표를 위해 흥미와 재미라는 수단을 이용하라. 유머를 발휘하라.
24. 자기만의 재주와 기술을 가져라.
25. 게임에 익숙하여 주의집중에 사용하라.
26. 듣지 않는 사람이 듣게 하는 말을 날려라.

27. 답을 바로 설교하지 말고, 퀴즈로 내는 데 예제를 들되 4지선다로 하되 예를 재미있는 것으로 들어라.
28. 생각을 유발하는 질문을 던지며 설교하라.
29. 설교가 거의 끝나 갈 때 “이제 마지막”이란 말을 해 주어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힘을 내도록 삶의 희망과 위로를 주라.
30. 제목을 산뜻하고 한눈에 정리되게 잡아라.
31.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심의 설교가 예화 위주의 설교보다 좋다.
 - 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32. 대답과 구호와 따라하는 행동을 요구해 잠을 깨워라.
33. 목소리 크기와 억양에 주의하라.
34. 빔 프로젝트(파워 포인트)나 칠판(화이트 보드) 등을 이용 눈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며 설교하라
35. 성령충만과 은사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성령을 소개하고 가르쳐 은사를 받게 하라.
 - (1) (행 19:2)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C. 청소년 설교의 기본

1.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내용의 질'은 '전달의 유무' 다음이다.
2. 커뮤니케이션이므로 청중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나이.환경.그곳 지역의 특징).
3. 철저하게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세대에 맞게 표현되어야 한다. 약간의 속어 사용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의 삶에서 쓰는 속어와 청중에 대한 욕이 나와서는 안 된다.
4. 세미나는 가르치는 것이고 설교는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5. 설교의 수준은 청중 그룹의 중상으로 맞추어서 설교한다. 어차피 최하층은 듣지 않는다.
6. 청소년 설교는 감성적인 이후에 이성적이어야 한다.
7. 청소년 설교의 주된 내용은 성경적인 지식보다는, 세계관, 가치관, 비전, 꿈, 용기를 심어주는 그 시기에 맞게 인생의 방향을 잡는 쪽으로 한다.
8. 설교란 말로 청중을 설득해서 따르게 하는 것이다.

D. 부흥회

a. 부흥회의 4대 성공 요인

1.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인도하심
2. 청중의 준비된 마음
3. 준비되고 훈련된 타고난 부흥사
4. 환경의 적절한 준비

b. 부흥회 前 준비

1. 환경 설치
2. 자리배치
3. 설교를 듣는 예의에 대한 교육
4. 강사 선택과 선(先) 주문, 교사와 강사와의 선 만남

c. 부흥회의 유익한 점

1. 지금까지의 신앙을 정리하고 결단한다.
2. 구원의 확신을 준다.
3. 말씀의 재미와 은혜를 깨닫는다.
4. 새로운 마음과 행동으로 변화된다.
5. 새로운 만남으로 새로운 기분을 준다.
6. 영적 충만, 영의 보신을 한다.

d. 부흥회의 유의할 점

1.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2. 부흥사 개인에 관심을 더 갖게 해선 안 된다.
3. 교사가 은혜와 도전을 받아야 한다.
4. 정기적으로 할수록 좋다.

Ⅲ. 지식

성경을 자세히 보고 방대한 자료로 연구하여 깊고 새로운 설을 만들라.

- (2) (단 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마귀와 귀신의 세계

구원, 복, 상의 구별과 강조(상급론)

천국의 삶과 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

구원론을 확실히 알고 믿음이 없으면 왜 지옥에 가는지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왜 천국에 가는 지를 제대로 이해되게 가르쳐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넣다 뺐다) 하게 하지 마라.

- (3) (고전 3:15)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 (4) (고전 5:5)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 (5) (히 11: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 (6) (약 2: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 (7)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 (8) (요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 (9)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10)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 (11) (마 11: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TOUCH 3.

청소년 교육목회의 틀 세우기

(청소년부 교육시스템 세우기)

강사: 김종석 목사 (부천성림교회 담임목사)

E-Mail: yeram1122@hanmail.net

1. 청소년 교육목회 현장의 상황

김만형 목사의 책 SS 혁신 보고서에서 오늘의 교회학교가 잘 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요소를 다음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시간 부족: 교회학교는 1주일 하루, 그것도 70분이 넘지 않는 시간만을 할당받았을 뿐인데, 질도 절대량이 있어야 가능하다.

2) 공간 부족: 한국의 교회학교 교육은 교회학교 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 하나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다.

3) 교육철학 부재: 교육철학은 단지 구색용이고, 액세서리일 뿐 교회학교 교육철학이 없이 눈대중으로 대충하는 교육풍토이다.

4) 교육투자 전무: 언제나 찬밥등어리 교회학교, 세속 교육의 열풍과 광풍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5) 전문인 부재: 교회학교 교육담당은 단지 장년부를 맡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하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전문 사역자가 없다.

즉, 교회학교 특히 청소년부의 부흥은 위의 다섯 가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교육 전문인의 부재는 심각하다. 교회학교 청소년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는 담당 교역자와 교사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일년의 목회계획을 세우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교육목회의 틀(원리) 세우기

‘교육목회’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즉, 목적이 설정되고 그 목적을 지향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교육목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목적을 설정하는 일이다. 여기서 목적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인 ‘목적’(Goal)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인 ‘목표’(Objectives)로 구분된다.

우선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목적 설정은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목회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 상을 기초로 해서 교육목적이 설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목적 설정의 한 예를 들어보자. 에베소서 4: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에 기초해서 교육목회의 목적을 설정한다면,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작은 그리스도(Today's little Christ)'가 되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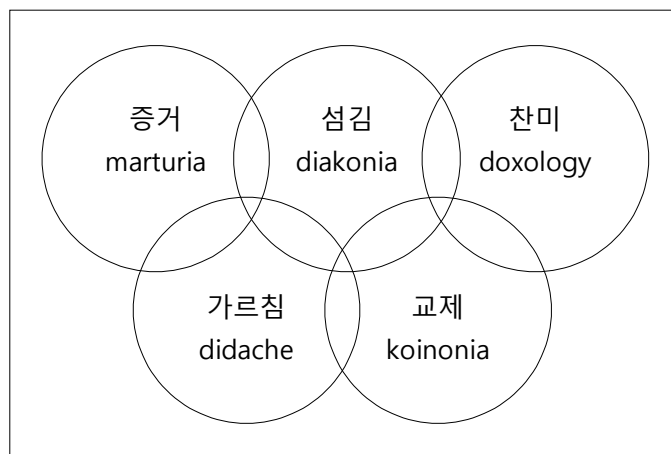
다음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앞의 예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자. 오늘의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다. 교육목회가 추구해 나아가야 할 일종의 궁극적인 목적지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현재 이 지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현재 교육의 대상인 청소년들을 교육목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목표 진술이다.

이 목표 진술을 위해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교육목회는 궁극적으로 '오늘의 작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지행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지금보다 한 단계 신앙을 성숙한 차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청소년 교육목회의 틀을 세우기 위한 5가지 영역

2011년 청소년 교육목회 계획의 틀을 세움에 있어 '전도'와 '세움'을 살리는 교육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세워야 한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에 부흥이 있게 될 것이다.

청소년부서의 현재와 미래의 부흥을 위해서는 교사와 청소년들을 전도와 세움으로 훈련하는 균형 잡힌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도는 교회 밖의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역이라면, 세움은 교회 안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사역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증거(marturia), 섬김(diakonia), 찬미(doxology), 가르침(didache), 교제(koinonia)의 5가지 사역이 아래와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



【청소년 목회 운영의 틀 세우기, 전도와 세움을 위한 5가지 영역】

오스머(Richard R. Osmer)는 위의 5가지 영역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증거가 포함하는 사역은 설교, 간증, 전도이다. 둘째, 섬김이 포함하는 사역은 성찬, 서로 짐 져주기, 사회봉사이다. 셋째, 찬미가 포함하는 사역은 안식일 지키기, 찬양, 여가선용하기이다. 넷째, 가르침이 포함하는 사역은 카테키시스, 훈계, 분별이다. 다섯째, 교제가 포함하는 사역은 환대이다. 전도와 세움이 살아 있는 청소년부 목회를 세우려면 위의 5가지 사역을

골고루 분해하여 교사들과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4. 청소년 교육목회의 구체적인 틀 세우기

청소년 교육목회의 구체적인 틀은 교회와 청소년부의 형편에 맞게 실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첫째, 청소년부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현재 우리 청소년부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한다.

둘째,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청소년부의 우선적 필요를 파악했으면 이것을 위한 단기 계획, 즉 1~2년 내에 실시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중·장기적 필요를 파악했으면 5년 내 그리고 10년 내 실시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프로그램이 결정됐으면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기존 프로그램들을 연구 조사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들 가운데 청소년부에 도입할 만한 것이 있다면 세밀하게 평가하여 적절한 형태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프로그램은 벤치마킹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직접 만들어 사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교사들을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나 준비물들을 마련한다. 그 후 홍보하여 청소년들을 모집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한 청소년 목회는 곧 '생명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목회 프로그램은 다음의 두 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교회의 내적 요소인 생명체(개인)의 양육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생명문화(공동체)의 형성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의 내적 건강을 위해 교사들과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일깨우고, 각양 은사를 따라 개인(지체)과 공동체(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할 건강한 그리스도인" 육성을 위한 소그룹 중심의 보다 체계 있고, 철저한 영성훈련 프로그램과 교육실천이 요청된다.

4. 1. 청소년 교육목회의 구체적인 틀 세우기 - 8가지 원리

4. 1. 1. 확실한 교육목표(SMART의 원리)를 세워라.

① Specific/ 좋은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주님께 합당한 삶', '신앙 성숙' 너무 막연하다. 실천 여부를 평가하기도 막연하다.

② Measurable/ 성취 여부를 측정 평가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

/ 예)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③ Attainable/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목표는 달성 하려고 있는 것이지 남에게 보여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Result-oriented/ 분명한 결과를 지향할 것이다.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에 그치지 말 것

⑤ Time-bounded/ 시간을 정해야 한다.

‘언젠가 하겠지’ 하는 식의 계획은 옳지 않다. 이와 같은 계획은 나태나 포기로 가는 길일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4. 1. 2. 재미있는 유익한 모임이 되도록 하라.

신세대는 스타일리스트를 표방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타일리스트가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그들이 만나는 사람에게서 매력 포인트를 찾으려고 한다.

4. 1. 3. 주일 프로그램을 단순화 하라.

굳이 옛날부터 해 왔다고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교육 목표, 또는 교육의 주안점에 따라 어느 하나의 활동에 온 힘을 집중하는 패러다임을 시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주안점, 또는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그 주안점을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의 틀 거리를 아주 단순화시켜 활동의 집중성을 높이는 것이다.

4. 1. 4. 창의적인 보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주일 활동이 예배를 중심으로 한 회심, 영적 성숙에 관심을 두었다면, 보조 프로그램은 양육과 훈련, 교제에 초점을 두는 교육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1. 5.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라.

신세대는 대부분이 식구가 단출한 핵가족 출신이다. 때문에 이들이 핵가족 환경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가정 공동체’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가정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4. 1. 6. 청소년 중심의 교육을 하라.

신세대는 발달심리학 특성상 무엇인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자율성이 아주 강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 의식도 매우 강하다. 따라서 그들은 강요받기를 싫어하며, 스스로 이야기의 결론을 도출하길 원하고 그 결론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길 원치 않는다.

4. 1. 7. 가정, 부모와의 연대를 모색하라.

청소년부와 가정, 교사와 학부모는 학습자를 향해서 서로 순환적인 협력자의 관계에 서 있다. 청소년부와 교사는 가정에 학습 원리 및 학습 정보, 학습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가정과 학부모는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둘이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학습자를 향한 교육은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4. 1. 8. 지도자는 말씀과 지도력을 회복하라.

아무리 좋은 환경과 교사들의 열정이 있을 지라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말씀과 지도력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표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는 좋은 말씀과 지도력을 가지고 이를 교사들과 공유해야 한다. 예) 체계적인 교사교육

4. 2. 청소년 교육목회의 구체적인 틀 세우기 - 월별 계획

4. 2. 1. 1월: 희망/ 새로운 시작의 달

- ▶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심을 알고, 2011년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희망을 갖고 살기를 희망합니다.
- 새해의 교육과정 소개, 목회자와 교사들의 새해 교육목적과 계획을 위한 교육
- 신년 축하 예배, 1학기 교사용, 청소년용 교재 배부

- 부장, 총무, 서기, 회계 교사 등 직능별 교사 교육
- 교사들과 청소년들을 전체적으로 면담 및 상담
- 교육 행정(서기부, 회계부) 문서의 점검

4. 2. 2. 2월: 질서 / 활기찬 분반 소그룹 운영의 달

-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켜야 할 질서를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질서를 잘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 분반 소그룹 사역을 위한 담임교사 교육
- 청소년들의 가정 심방-부모와의 상담
- 타 교회 청소년부서 견학 및 탐방
- 분반 소그룹 활동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
- 사순절 준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준비

4. 2. 3. 3월: 겸손 /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는 달

- ▶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배웁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반학교 신입생들에 대한 초청 전도 프로그램의 기획(봄 새생명 전도축제 등)
- 교회학교 교역자와 교사들의 영성을 위한 기도회 개최
- 청소년 등반대회 개최
(M.Y.F 연합으로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회)
- 부활절 축하행사를 위한 준비

4. 2. 4. 4월: 기쁨 /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달

- ▶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위한 부서실 데코 작업
- 부활절 축하행사
- 결석을 자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조치
- 교사들의 자질향상과 연수를 위한 교사교육의 기회 준비
- 어린이, 어버이주일의 축하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4. 2. 5. 5월: 사랑(가족) /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달

- ▶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졌음을 알고, 내가 먼저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 교회, 청소년부와 가족공동체의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도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학부모와 청소년부 공동으로 청소년의 기독교적 양육을 위한 토의 또는 참관수업
- 청소년부서의 졸업생들을 초대하는 홈 커밍데이
- 교사주일 즈음하여 그들의 헌신을 다짐하고, 사명을 재확인하는 행사의 기획
- 여름 행사를 위한 준비 및 기도회 시작

4. 2. 6. 6월: 책임 / 절반의 완성

- ▶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 1학기의 교육활동 정리 및 금년도 상반기 청소년부 운영의 점검/ 하반기 준비
- 여름 행사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 : 캠프 준비
- 여름 행사를 위한 교사세미나 참여
- 청소년부 행정(서기부, 회계부)에 대한 전반기 감사
- 2학기 분반 소그룹 교재 구입

4. 2. 7. 7월: 공동체(하나 됨) / 여름행사

- ▶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고, 신앙의 훈련(여름행사)을 통해 하나 됨을 확인하고 실천합니다.
- 맥추감사주일 예배
- 2학기 교육활동과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 실시
- 여름행사를 위한 교사 임명 및 헌신예배
- 여름방학 생활을 위한 특별교실 개최 특강 실시
- 여름 행사 후의 신앙교육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의 준비

4. 2. 8. 8월: 자제 / 쉼 그리고 준비의 달

- ▶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 여름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연구
- 여름 행사에 수고한 이들 격려
- 2학기 교육활동의 강화
- 2학기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를 강화하는 심방실시
- 청소년부 헌신예배(여름행사 후)

4. 2. 9. 9월: 믿음 / 새롭게 시작(정비)하는 달

- ▶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임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 여름 행사의 종합평가와 청소년부의 교육활동과의 연계작업
- 2학기 학교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고취시킴
- 그리스도인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봉사 프로그램의 실시
- 학생들의 구원의 확신을 도와주는 구원상담과 구령운동의 전개
- 내년도 여름 행사 장소 계약 및 준비 시작

4. 2. 10. 10월: 감사 / 풍성한 문화 마당이 있는 달

- ▶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 개천절의 신앙교육으로 '단군신화와 기독교적인 이해' 또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세미나 개최

-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개별 상담 : 중등부로의 적응 모색
-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 퇴수회 - 교사기도회 및 세미나 개최
- 학년 말의 학사관리 준비 시작
-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의 동계 신앙교육 행사를 위한 준비 모임
- 청소년부의 문화 활동 개최: 백일장, 성경통독, 성가 발표회 등
- 고 3 수험생들을 위한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

4. 2. 11. 11월: 금홀 / 결실과 감사의 달

- ▶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금홀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 진급과 수료를 위한 청소년들의 학적부 및 생활기록부 정리
- 금년도 분반 소그룹 목회의 계획에 따른 발달상황의 확인과 보완적인 조치
- 새해의 사역을 위한 교사의 모집과 현직 교사들의 계속 사역을 위한 개별상담 (반 편성 및 교사들의 각 반 배치)
- 고 3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 당일 기도회'
-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고려한 교사대학-교사훈련의 실시
- 새해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월별 교육활동의 계획을 수립함
- 겨울 행사의 계획과 준비
- 추수감사절

4. 2. 12. 12월: 평화 /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달

- ▶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알고, 평화를 지키며 전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 신임교사들을 위한 교육 준비
- 성탄절 축제 행사 준비와 진행
- 분반 소그룹 활동의 정리를 위한 교사와 청소년들의 친교모임
- 새 학년도 1학기 교사 및 청소년들의 교재 마련
-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수고에 대한 격려 인사 - 소품의 선물 증정
- 졸업생들의 축하행사

4. 3. 청소년 교육목회 시스템 세우기의 실제

4. 3. 1. 2011년 청소년부 교육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한 1단계

- 계획을 세우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1. 2010년에 세운 청소년부의 비전과 목표들이 잘 실천되었는가?
2.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예배, 전도, 소그룹 등)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었는가?
3. 청소년부에서 가정 잘 되는 프로그램과 안 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잘 안 되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진행했는가?

5.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부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무엇인가?
6.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만족도는 어떤가? 이를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본 적이 있는가?
7. 건강한 청소년부 성장을 위해 담당 사역자의 역할과 청소년, 교사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8. 청소년부의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목회자 스스로 많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각 영역에서 평신도(전문가)와 협동하는가?
9. 우리 청소년부는 교회와 특별히 담임목사와의 관계를 잘 맺고 사역을 하였는가?
10. 2011년 청소년부의 비전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은 무엇인가?

4. 3. 2. 2011년 청소년부 교육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한 2단계

-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파악

1) ○○교회 사명(Mission):

2) ○○교회 목표(Goal):

3) 목회 십계명: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⑥ | ⑦ | ⑧ | ⑨ | ⑩ |

4. 3. 3. 2011년 청소년부 교육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한 3단계

- 청소년부 교육목회 철학(교육담당 부교역자)

1) 청소년부 교육사명(Mission):

2) 청소년부 교육목표(Goal):

3) 청소년부 교육목회 십계명: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⑥ | ⑦ | ⑧ | ⑨ | ⑩ |

4. 3. 4. 2011년 청소년부 교육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한 4단계

- 2011년 청소년부 교육목회 계획

1) 교육목회 비전:

2) 교육목회 표어:

3) 교육목회 주제 성구:

4) 2011년 교육목회 5대 중점사항

- ①
- ②
- ③
- ④
- ⑤

4. 3. 5. 2011년 청소년부 교육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한 5단계

- 2011년 청소년부 분야별 중점 교육목회 계획

- 1) 예배: 찬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배는 생방송이다. 따라서 잘 짜여진 각본과 그것을 분담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삶의 회복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은 예배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 2) 전도: 전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제시를 통하여 청소년, 교사들과 청소년부의 목표를 함께한다. 기존의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를 새가족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교회로 전환해야 한다. 새가족 시스템을 구축하라.
- 3) 교육: 구체적인 (교사, 청소년)교육시스템을 구축하라.
- 4) 제자훈련: 제자훈련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은 예수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청소년들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 5) 소그룹: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를 세우기 위한 훈련과정이 있어야 한다. 소그룹은 단순한 교제와 성경공부를 넘어서 돌봄과 성장과 번식이 있는 영적가족이어야 한다. 소그룹 리더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함께해야 한다.
- 6) 상담: 자기 내면의 상처를 찾고 치유하여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집단상담, 나를 찾아서 등의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가족갈등, 가정구조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7) 섬김: 서로가 섬김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1년 중 목회계획 속에 섬김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한다.
- 8) 코이노니아: 담당 사역자가 청소년들에게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인식시켜야한다. 공동체적 삶의 기본자세는 섬김이다. 섬김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 밖의 세상에서까지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 9) 재정: 청소년부라 할지라도 재정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예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10) 교사: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역들을 가능케하는 최고의 도움이들은 교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체계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4. 3. 6. 2011년 청소년부 교육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한 6단계

- 2011년 청소년부 비전 실천을 위한 10가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TOUCH. 4-1.

성령 하나님의 특명!

ACTS 29, 사도행전적인 청소년교회를 구축하라!

강사: 김신곤 목사 (바로그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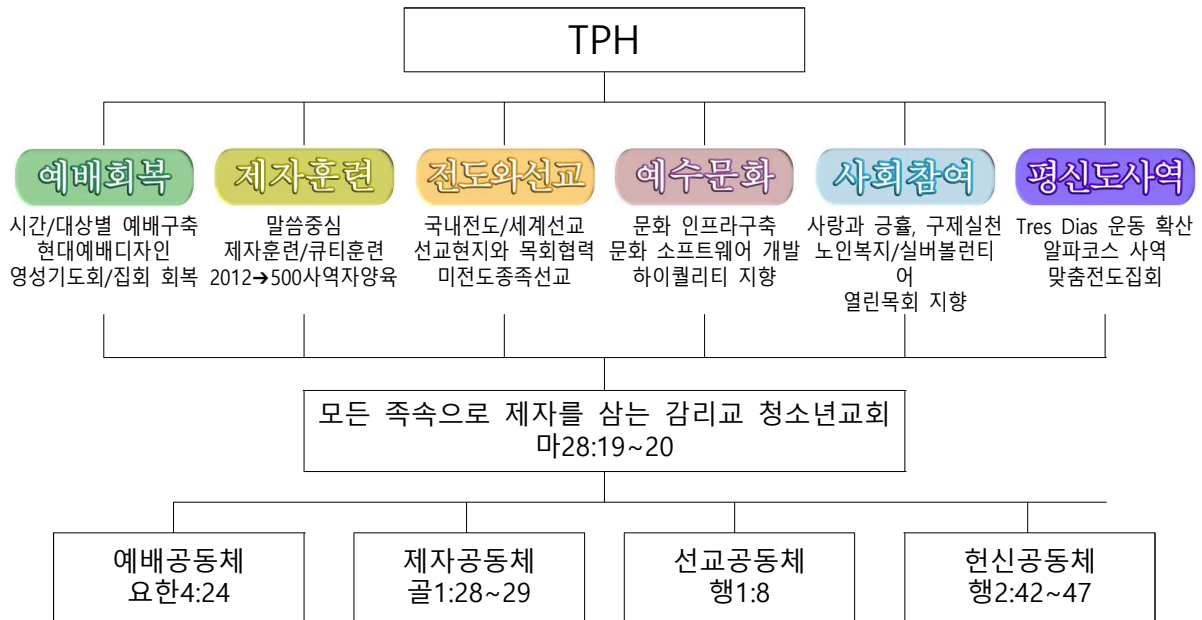
E-Mail: romans-84@hanmail.net

이 시대의 청소년 목회비전과 청소년 목회철학은 'T.P.H비전'으로 설명되어지고 풀려진다.

1. 'T.P.H 비전'이란 무엇인가? (의미)

교회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은 가르치시고(Teaching), 전파하시고(Preaching), 고치시는데(Healing) 무섭게 집중하시면서 불꽃같은 삶을 보내셨다(마4:23). 왜냐하면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아바(Abba) 하나님의 비전(딤후4:2)을 잘 아셨기 때문이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이 'T.P.H비전'을 계속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개체교회들은 'T.P.H비전'을 계속 수행하는데 모든 리소스와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바로 이 비전을 계속 수행하는 교회체질로 변모시키는 일체의 노력들을 <ACTS 29, 사도행전적인 청소년교회 구축>이라고 한다.

2. 'T.P.H 비전'으로 디자인되는 청소년교회 : 6축과 4공동체



이제 'T.P.H 비전'을 풀어나가는, 실무적인 청소년교회 목회철학을 이야기하겠다.

1. 목적에 의해 춤을 추는 청소년교회 Dance to the Purpose

이상적인 청소년교회는 목적(Purpose)에 의해서 움직이고 춤을 추는 교회여야 한다. 청소년교회의 모든 멤버십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을 응시할 때 청소년교회의 파워는 엄청난 에너지를 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교회의 모든 멤버십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을 응시하게 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딤후2:4이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 이 땅의 크리스천들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목적이다. 그러므로 간단하다. 청소년교회의 모든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교사들은 청소년들의 초점과 관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비전에 모아지도록 본(本)이 되고 이끌어야 한다(벧전5:3).¹⁾ 저의 경험이지만 청소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사명에 주파수 맞추어지면 아주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 이것이 목적에 의해 움직이고 춤을 추는 청소년교회이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목적(비전)에 의해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전체가 춤을 추는(삼하6:14), 바로 그런 청소년교회를 꿈꾸도록 하자!

(1) 성경의 원리에 목적을 두는 목회

복음과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시대는 계속 변한다. 그러므로 변하는 이 시대에 복음과 진리를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청소년목회 콘텐츠와 목회프로그램들을

1) 벧전5:3~4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개발, 적용해 나가야 한다. 이 시대의 청소년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프로그램과 방법에만 집착하면 자기함정에 빠진다. 역시 원리를 찾아야 하고 그 원리는 성경(말씀)이 되어야 한다. 가장 큰 대 전제가 되는 성경의 원리는 아래 3가지이다.

· **청소년교회의 목적(Purpose) → 딤편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who wants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a knowledge of the truth.)

· **청소년교회의 사명과 비전(Mission & Vision) → 마태 28:19~20**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 **청소년교회의 목회(Ministry) → 마태 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Jesus went throughout Galile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among the people.)

2. 말씀 중심의 청소년교회 Teaching or Learning

예수님의 비전을 청소년교회 공동체가 실천할 수 있으려면 가장 급선무는 ‘청소년들에게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청소년들에게 소외당하고 있는 시대가 없었다. 말씀이 청소년교회를 살아 숨 쉬게 하는 본질적인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함은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청소년 목회의 본질 중 가장 중요한 콘텐츠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의 가장 우선하는 기본 방향은 말씀 중심의 목회가 이뤄지도록 주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모든 교사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Teaching or Learning)....’ 하는, 여기에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 투자해야 한다.

(1) 강해설교

청소년교회 공동체와 청소년예배 안에 설교(말씀)가 회복되면 영적부흥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설교가 회복되기 위해선 <주제설교>보다는 <강해설교(講解說敎)>가 유익하다는 목회철학을 가지고 있다. 하여 청소년 설교에는 절기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고도 성실하게 강해설교를 해 나가야 한다. 처음에는 주제설교가 단박하고 임팩트가 있어 보이지만, 성경을 부분 부분 캡처하듯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사28:10)²⁾ 본문을 골라서 순간 자극을 주는 주제설교의 영적 생명력은 청소년들의 뇌리에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강해설교가

2) (사28:10)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도다.

말씀 중심의 청소년교회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이다.

(2) 제자훈련

강의자는 지난 2000년에 두란노서원(온누리교회) 주최 <일대일제자양육성경공부 지도자과정>을 훈련받다가, 제자훈련이야말로 가장 감리교적이고, 가장 웨슬리적인 형태의 말씀 양육법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말씀 중심의 제자양육성경공부를 통해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삶의 질(質)이 변화되는 모습을 목회 임상적으로 경험하였다.

(3) 큐티(QT)훈련

청소년 개개인이 교회와 예배를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큐티(Quiet Time)다. 큐티란 하루하루 (길게 든 짧게 든, 어떠한 형태로든) 영적 일기를 쓰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청소년교회가 큐티로 길만 들어진다면, 그 큐티는 당신의 교회 청소년들을 성숙하게 하고,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 확실하다. 청소년교회를 제자훈련과 더불어 큐티훈련으로 새로 디자인하라. 분명히 체질이 변할 것이다.

(4) 연중 청소년목회 프로그램의 말씀 중심화

예컨대 성경퀴즈대회, 매주별 암송체크, 성경통독 목록표 점검...

3. 선교와 전도 중심의 청소년교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구원이다. 당연히 청소년교회의 목적도 선교와 전도, 영혼구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거나 배우기만 하면 안 된다. 말씀이 구체화되는 것이 선교와 전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교회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전파와 영혼구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가든지 보내든지 (Going or Sending)...' 해야 한다.

우리 교회 상황에선 너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라. 너무 현실적이 않다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는 대위임령(大委任令)을 수행하는 청소년목회비전이다.

(1) 청소년 대상 맞춤형전도집회

새로운 시대에는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해야 한다. 교회는 교사와 지원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은사들을 매트릭스(matrix) 시스템으로 집중시켜서 전도사역에 참여케 하여 아주 철저하게 대상적이고도 치밀한, 또 관계적이고도 전략적인 전도 패러다임인 맞춤형전도집회를 년중 2차례(여름/수련회, 겨울/성탄절) 실시하라.

(2) 열린 새친구초청 예배 : VIP 초청 잔치

알파코스의 첫 단계인 VIP 초청 잔치와 같은 친구전도예배를 개최하여 새친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열린 예배를 기획, 새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 그리고 뒷문을 꼭 닫으라! 그게 바나바 사역이다.

(3) 바나바사역

맞춤전도집회로 교회와 관계를 맺은 새신자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바나바사역을 통하여 공동체와 속회 정착을 유도하는 바, <새친구 NMC(New Membership Course) 사역>을 진행하고, 새친구들을 위한 <청소년 알파(ALPHA) 코스>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새친구들이 체계적으로 청소년교회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양육하라!

(4) 해외 선교

- ① 월드비전과 연계하여 청소년교회에서 교회 형편껏 해외 기아아동을 후원하라. 후원 재정은 청소년예배의 헌금으로 충당한다.
- ②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후원하여 보내라. 그리고 중보기도하라. 그리고 상황이 되면 여름방학, 혹은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단기선교여행을 기획, 실제로 떠나보도록 하라! 이게 사도행전적인 청소년교회다.

4. 예수문화가 풍요로운 청소년교회

이 시대는 문화의 변혁시대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는 많은 부분이 사탄의 문화, 악한 영의 문화에 찌들고 눌러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예수문화 코드와 마인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변혁시키고 거룩한 기름부음이 있는 예수 문화(Jesus Culture)가 장려되고 확산되도록 적극 투자해야 한다. 특히 도시 한 가운데에서의 청소년목회는 문화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청소년들을 향한 예수문화는 아주 중요한 목회적 콘텐츠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사역자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 문화를 풍요롭게 펼쳐나가는 목회적인 눈과 마인드를 소유해야 한다.

(1) 영상예배의 전문화 구축

문화가 살아나면 그 시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문화가 살아나면 교회가 생동감이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영상시대에 영상문화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층~중장년층~청장년~청년~청소년 할 것 없이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영상문화에 익숙하고, 영상적인 변이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 영상 설교, 영화예배, 스킷드라마 개발 사역, 교회 홍보영상 제작 etc

(2) 다양한 찬양문화 콘텐츠 강화

최근에 시대 문화에 따라 CCM, CCD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교회음악들이 등장했다.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 사역자들은 조심스러운 가운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청소년교회 안에는 찬양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집회들을 기획과 콘티를 만들면서 감격과 감동, 생명력과 자존감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청

소년교회 사역자는 세상의 어두운 저급문화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청년, 청소년들을 깨워 헌신자로 훈련시킬 준비를 하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한다.

☞ 찬양집회/콘서트, CCM/CCD 발탁 및 훈련, 찬양대회, 뮤지컬, 연극, MA(Music Academy) 운영 etc

(3) 예수문화를 위한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교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과감한 예수문화 장(場)을 구축하는 교회가 선교전략에서 우위를 점거하고 승리하게 된다. 이 공간에서 다양한 예수문화가 역동적으로 살아나면 교회 안에 예수 문화적으로 헌신하는 젊은 층과 전문사역자들이 자연스럽게 두터워지게 된다. 이건 교회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예수문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카페테리아, 예수문화 소극장 운영

(4) 다양한 예수문화 소프트웨어 개발

예수문화를 위해 구축된 인프라를 채우는 것은 역시 예수문화 소프트웨어이다. 무엇보다도 IT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와 같은 사이버(cyber) 영역에도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IT는 아주 훌륭한 청소년목회와 청소년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이퀄리티를 지향하는 디자인 문화가 청소년교회의 차별화를 가져다준다. 당신의 교회에는 반드시 이런 인적자원이 있다. 그 사람을 활용하라! ☞ 교회홈페이지, 하이퀄리티 디자인문화 etc

5.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청소년교회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고(행2:45), 하루하루가 구제하는 삶이었고 공동체였다. 그 결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행2:47). 여러분의 청소년교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사회를 품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울러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특별히 청소년교회는 감동을 주는 시대의 거울이자 시대의 대안(代案)이 되어야 한다.

(1) 구제사업

교회가 사회복지 기관은 아니지만 구제사업과 자선사업과 같은 사랑과 긍휼(矜恤)은 교회의 외적 표현이어야 한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와 청소년들의 신앙을 보시겠지만, 지역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와 청소년들의 외모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제사업은 청소년교회와 청소년목회의 중요한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

☞ 사랑의 도시락배달 협력, 사랑의 쌀 나누기 협력, 거리청소 아웃리치사역...

☞ 소외된 이들(고아원, 양로원, 독거노인, 미혼모, 소년소녀가장)을 향한 전략적 구제 프로젝트 etc

(2) 신실하고 선한 긍휼을 베푸는 문화 정착

그러나 이런 구제(救濟)가 우리들의 인위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양심에 호소하거나,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구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성령의 넘치는 공함과 구제를 택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교회에 아름다운 영적 감동이 차고 넘쳐서 더 크고 더 놀라운 감동적인 구제문화를 정착시키는 거룩한 공함을 베푸는 청소년목회를 꿈꾸자!

☞ 사랑의 청소년 바자회, 소외(왕따) 친구에게 편지쓰기(문자보내기) 운동 etc

(3) 열린 문화행사(사랑의 콘서트)

현재 우리 교회들은 문화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교회는 문화·예술적인 달란트를 가진 성도와 청년, 청소년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예수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한다. 이걸 청소년교회가 하라. 지역민들과 아름다운 문화적인 감동을 나누고 선도하는 착한 행실의 선한 청소년교회를 꿈꾸자!..

☞ 사랑의 콘서트, 클래식 향연의 밤 etc

청소년 제자훈련 이야기

강사: 최세헌 목사 (베다니교회 교육목사)

E-Mail: mts7942@naver.com

1. 청소년 제자훈련의 필요성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줄어가고 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영향이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들 그리고 그 부모들의 세계관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입시, 경쟁, 성공이 이들의 중심가치가 되어버렸다.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보다 신뢰할만한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더 신뢰한다. 때문에 신앙 교육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해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본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향 아래서 드리는 찬양예배가 답일까도 생각해본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청소년 사역의 본질이 아닐 것이다. 인생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제자훈련은 이 중요한 필요를 채우는 방법들 중 하나이다.

2. 청소년 제자훈련의 목표

청소년 제자훈련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이자, 교회에 부름 받은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역의 목표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시고 사도로 세우신 바와 같이, 영적 교제와 가르침, 훈련을 통해 교회 속의 '작은 예수들'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훈련은 믿음이 없는 아이를 믿음이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학생에게 믿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자훈련 전 단계 즉, 예비제자훈련과정(신앙의 기초세우기 과정)등을 통해 신앙의 확신을 세워 제자훈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큰 성장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이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작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제자훈련을 시작하려는 것인가?'이다. 여러분 안에 명확한 동기를 점검해보라.

3. 청소년 제자훈련을 위한 공감대 형성

1) 교역자 공감대

- 담임목사님과의 충분한 대화
- 청소년 파트 사역자들(혹은 동료 교역자들)과의 치열한 대화
- 현재까지 사역에 대한 평가
- 신학적인 정리 작업

2) 교사 공감대

- 교회학교 리더들(교육부 임원 등)과의 공감대 형성
- 중고등부 교사들과의 훈련 필요성 및 방향성 공유
- 교사 훈련학교 등의 교사 제자훈련 과정 필요
- 제자훈련에 헌신할 교사 세우기

3) 학생 공감대

- 제자훈련을 통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형성
- 다수를 위한 훈련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집중되고 엄격한 훈련임을 강조
-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각오와 결단을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제자훈련 1기의 경우 일부 정도는 교역자가 기도하며 개인적인 calling을 하는 것도 좋다.

4) 학부모 공감대

- 청소년 제자훈련은 반드시 부모들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 자녀 인생의 분명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한 나눔
- 신앙 교육은 교회 교육만이 아닌 가정 교육과 반드시 연결된다는 공감대 형성
- 신앙 교육과 자녀 양육에 관한 나눔과 기도의 자리 마련

4. 청소년 제자훈련의 실제

1) 준비과정

- 제자훈련 Staff 구성
- 준비회의 (커리큘럼 및 일정 기획, Staff 역할 세우기 등)
- 기획안 작성 및 예산 확보
- 제자훈련 설명회 (학부모 모임, 임원 모임, 수련회 등)

2) 모집 및 선발 과정

- 교회 상황에 맞게 선발 대상 학년을 결정
- 홍보 (예배 광고, 포스터, 홍보 영상, 주보 등) : 기대감
- 지원서와 추천서, 서약서를 통해 준비된 학생 선발 (원서 배부, 등록금)
-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 지원 독려 (특히 1기를 잘 선발해야 한다.)
- 교역자 및 Staff가 서류 및 면접 과정을 진행
- 지원자의 부모들도 제자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서약
- 합격자 개별통보 (합격통지서를 발송해도 좋다)

3) 오리엔테이션

- 오리엔테이션은 학부모와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 (합격통지서 및 개별연락을 통한 초대)
- 테이블 이름표, 강의 노트, 볼펜, 목상집,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을 미리 셋팅해 놓는다.
- 제자훈련 기간에 대한 기대감과 Guideline을 설명
- 첫날 소그룹은 ice break 형식으로 진행
- 학생 소그룹 시 학부모 모임 (학부모 리더 세워 기도모임 결성)

4) 강의기간

- 커리큘럼에 따른 10주~12주 정도의 강의 기간
- 전체 강의와 소그룹 모임
- 강의 형태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한다.
- 매주 1천원 내외의 선물을 테이블 네임과 함께 셋팅해 놓는 것도 좋다.
- 과제 제출 및 철저한 확인

5) 1박 2일 수련회

- 5월 중 공휴일 또는 놀토를 이용해 1박 2일 수련회 준비 (1시간 이내 거리)
- 미션수행, 예배, 기도회, 세족식, 애찬식, 교제의 시간 외 상황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6) Research Trip : Mission

- 강의실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배우는 시간
- 연세대학교, 종로, 정동, 양화진 등 복음의 씨앗이 담겨진 곳을 직접 찾아가 본다.
- 소그룹별로 아이들끼리 이동하고, 리서치 한다.
- 마지막 장소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으로 모이는 것도 좋다.
- 포스터 그리기, 감상문 쓰기 등으로 정리한다.

7) 가정 강의 (부모님과 함께 하는)

- 청소년 제자훈련 과정에는 가정을 다루는 강의가 필요하다.
- 의사소통, 대화, 상처와 회복에 관한 주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8) Love Feast (애찬식 : 마지막 강의 후)

- 준비 : 학생들과 후원자들에게 각각 비밀로 깜짝 편지를 준비해오도록 한다.
- 초청 : 학생들을 통해 부모님 및 교사 초대 (부모 및 후원자 명단 파악, 개별연락)
- 진행 : 후원자들이 미리 모여 학생들을 위한 식사 준비 / 학생들은 예배, 강의, 소그룹 후 식당으로 이동 / 환영 / 식사 및 다과 / 서로를 위한 마음의 글 나누기 / 기도

9) 비전트립

- ※ 강의 기간 후반부 비전트립에 관한 내용 공지, 준비 시작 / 강의기간을 마친 후부터 방학을 이용하여 비전트립 준비 (사역별로 팀 구성)
- 국내 비전트립 : 미자립교회 여름성경학교 사역
- 해외 비전트립 : 같은 문화권 內 다양한 선교 사역

10) 수료식

- 주일 오후예배 시간 혹은 중고등부 헌신예배 시간을 통해 전체 교인에게 축하와 격려
- 교회 상황에 따른 다양한 Ceremony 준비

11)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

- 오리엔테이션 시 조직된 학부모 모임 (기도, 재정 등의 후원 역할)
- 강의 기간 중 동일한 시간에 학부모 기도 후원 모임 진행 (자발적인 모임으로 발전)

5. 청소년 제자훈련 사후관리 및 한계성

- 제자훈련 이후 기수별 모임 (1기→2기 기도후원)
- 제자훈련 이후 양육 프로그램 필요 (훈련 커리큘럼 세우기)
- 중고등부 안에서 섬기는 리더로 세워가기
- 중고등부 사역의 한계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6. 베다니 청소년 제자훈련(ByDTS)

1) 커리큘럼 및 진행

청소년 제자훈련은 12주간의 강의(오리엔테이션, 애찬식, 일일수련회 등을 포함)기간과 일주일간의 Vision Trip으로 진행한다. 강의기간이 끝난 후 Vision Trip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Vision Trip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모인다.

① 강의 주제들

주	강 의 주 제	큐티본문	활 동
1	개강예배 / 오리엔테이션	청소년 매일성경 QT 교재를 사용하여 소그룹 별로 나눕니다.	소 그 룹
2	말씀 묵상 (QT)		소 그 룹
3	예 배		소 그 룹
4	기 도 (중보기도)		소 그 룹
5	죄		소 그 룹
6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소 그 룹
7	관 계 (1박2일 수련회)		수 련 회
8	성 품		소 그 룹
9	Mission		Research Trip (양화진)
10	가 정 (부모님과 함께)		소 그 룹
11	제자의 삶		소그룹 (비전트립 준비)
12	비전 세우기		Love Feast (애찬식)
Vision Trip 준비 및 진행 (국내 또는 해외)			

② 제자훈련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40	제자훈련 준비 모임	Staff
2:00~3:30	예배 및 강의	최세헌 목사 외 강사
3:30~4:30	소그룹 모임	소그룹별 장소

☞ 소그룹 모임 진행

- ① 지난 주간의 삶을 나눈다. (지난 주간 Q.T 및 삶의 적용과 은혜, 성경 암송구절 등)
- ② 오늘 들은 강의를 통해 배운 것을 나눈다.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삶에 적용적인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의 적극적인 나눔이 필요하다. 그 날의 강의 교재 준비)
- ③ 한 주간 결단 및 전달사항 나눔
- ④ 기도제목 나눔 및 중보기도

2) 청소년 제자훈련 행정

① 제자훈련 전체 학사일정

- ✦ 전체일정 : 2010년 3월 27일부터 9월까지
 - 강의 기간 : 3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 전도여행 준비기간 : 6월부터 7월까지
 - Vision Trip : 8월 8일(주일)부터 13일(금)까지
 - 졸업식 : 9월 12일 주일 오후 중고등부 헌신예배 시

일 자	내 용	비 고
2월 28일	중고등부 예배시간 광고 및 원서 배부	현수막 광고 시작
3월 7일	홍보 / 원서 접수 시작	
3월 13일	Staff Meeting (준비기도회)	3시 / 3층 회의실
3월 14일	홍보 / 원서 마감	
3월 17일	Staff Meeting (준비기도회)	7시 30분 / 미정
3월 20일	(주중 서류심사) 면 접	2시 / 2층 회의실
3월 21일	합격자 통보	개별 통보
3월 27일	Staff Meeting (준비기도회)	1시 / 2층 회의실
3월 27일	개강예배,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2시 / 2층 회의실
3월 27일~6월 5일	강의 기간	2시 / 2층 회의실
6월 5일	Love Feast (애찬식)	지하 식당 (Vip Room)
6~7월 중	비전트립 준비모임	사역그룹별
8월 6일	비전트립 기도후원의 밤	3층 살롬홀
8월 8일~13일	Vision Trip	중국
8월 중	정리 모임	
9월 12일	수료식 (중고등부 헌신예배 시)	4층 대예배실

② 지원자격

❖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집 인원은 12명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훈련의 집중력과 방향성을 위한 것이다.

③ 지원서류

- ❖ 지원서(사진 2매 포함) 및 부모님 동의서
- ❖ 신앙고백서 및 서약서
- ❖ 추천서 3부 (부모님, 교회 담임교사, 친구 1명 / 단 부모님께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 전도사님에게 받을 수 있다.)
- ❖ 등록금 7만원

④ 수료조건

- ❖ 출석 : 12주간의 강의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 1회에 한하여 결석이 가능합니다. 단, 사전에 소그룹 담당자(전도사 혹은 간사)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결석한 강의에 대해선 개인 강의 또는 독서과제가 나갑니다.
- ❖ 독서과제물 : 제자훈련 강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두 권의 책에 대한 독서 과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량은 A4 2장 내외)
- ❖ 부모님의 기도후원 및 지원 : 청소년 제자훈련의 수료를 위해 부모님들의 관심과 도움 그리고 기도의 후원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소그룹별, 그리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자훈련 학부모 기도모임을 갖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이 모임에 참석하셔야 학생들이 수료할 수 있습니다.
- ❖ 개인학업 : 제자훈련을 계기로 개인의 영적인 성숙은 물론 각자에게 맡겨진 학업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 수료를 할 수 없습니다. (학년 비교, 중간-기말 비교 / 담당목사 확인)
- ❖ 중고등부 수련회 참석

⑤ Staff 역할 분담

- ❖ 행정 담당
 - 제자훈련의 모든 내용과 기록들을 자료화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학생관리 및 제자훈련 운영의 역할을 한다. 또한 제자훈련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의 학사관리를 맡는다.
- ❖ 지원 담당
 - 제자훈련에 필요한 모든 제반 필요들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 각자의 훈련과정 점검과 그에 따른 학부모 모임을 관리하고, 비전트립에 관한 계획과 일정준비를 담당한다.
- ❖ 회 계 : 제자훈련학교 전체의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 ❖ 예배인도 : 제자훈련학교의 모든 예배를 담당한다.
- ❖ 소그룹(Flock) Leader : 소그룹 리더는 제자훈련 강의와 말씀, 기도를 중심으로 소그룹 멤버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다루어 주는 역할을 한다.

7. 정리 및 질의 응답

TOUCH 4-3.

영중등대 청소년사역 부흥기

강사: 김선국 전도사 (영등포중앙교회 교육담당)

E-Mail: followme81@hanmail.net

5년 전(2005년) 영등포중앙교회 청소년부는 한 마디로 "소망이 없는 청소년부"였다.

- * 예배 출석 인원 15-20명 (대부분이 교회 직분자 자녀)
- * 담당 전도사는 사역을 그만두고 신학생 혼자 사역함
- * 교사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섬기는 교사가 한 명도 없음
- * 형식적인 예배, 어떤 교제나 모임도 없이 뿔뿔이 흩어짐
- * 학생들 서로 전혀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없음

"어느 누가 봐도 소망이 없어 보였다. 어떤 사람은 망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그랬던 청소년부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일해 주셨다.

영중등대의 사역은 대단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다.

그래서 영중등대의 사역을 소개할 수 있는 것 같다.

어느 교회의 청소년부라도 사역자, 교사,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으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이다. "

<영중등대>는 영등포중앙교회 청소년 공동체를 부르는 이름이다. 사역자와 교사들이 몇 개월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깜깜한 밤바다를 향해 밝은 빛을 비춰주는 등대처럼, 어두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청소년 공동체'(마5:14-16)가 되자는 비전을 가지고 2005년 6월에 청소년부의 이름을 영중등대(YoungJoong Lighthouse)로 정하였다. 동시에 영중등대의 사명과 비전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인 영중등대의 청소년 사역이 시작되었다.

<영중등대>가 함께 꿈꾸며 세워가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다.

- 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과 회복이 있는 청소년 예배공동체
- ② 체계적이고 철저한 양육을 통한 청소년 제자공동체
- ③ Q·T의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의 법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청소년 Q·T공동체
- ④ 성령 안에서 한 영혼의 기능보다 존재자체를 귀히 여기는 청소년 사랑공동체

- ⑤ 성실하고 전략적인 학원 안팎의 선교를 통한 청소년 학원선교공동체

<2005-2010(6년간) 영중등대 이야기>

* 2005년도 (개척기) - 사역의 돌파구를 찾아서 맨 땅에 헤딩하다.

- 1) 중학교 앞에서 사영리 소책자를 한 권 들고 청소년들에게 무작정 복음을 전했다.
- 2) 수단과 방법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도된 청소년들과 함께 뒹굴었다.
 - 일대일 심방, 교회에서 숙식, 축구, 농구, 탁구, 팔씨름, 버디버디, 싸이월드, 편지발송
- 3) 겨울, 여름 2회의 자체수련회에 전력을 다한 결과,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꿀 수 있었다.
- 4) 처음으로 학년을 골고루 섞어서 등대모임(예배 후 소그룹모임)을 시작했다.
- 5) 담당 사역자들이 청소년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워서 교사들과 비전을 공유했다.
 - 청소년 사역 관련 도서를 섭렵하고, 선배 사역자와 세미나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 2006년도 (정체기) - 다양한 사역을 시도하며 정체성을 고민하다.

- 1) 영중등대에 맞는 예배의 디자인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며 변화를 시도했다.
 - 학생들이 중심이 된 "거룩한 빛"(Holy Light) 찬양단을 새롭게 조직했다. (현재6기)
- 2) 예배 후의 등대모임이 정착되었다.
 - 등대모임의 컨셉은 성경공부에 맞추지 않고, 삶의 나눔과 사랑의 교제에 맞추었다.
- 3) 처음으로 담당사역자가 1:1 성경공부, 2:1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 영중등대 청소년 양육프로그램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 4) 새생명 FESTIVAL(4주), 중국비전트립, 고3 특별기도회(12주)등이 처음으로 기획되었다.
- 5) 매주 학교 앞 전도를 나갔지만, 학교 앞 전도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 학교사역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이곳저곳 문을 두드려 보기 시작했다.

* 2007년도(전성기) - 영중등대 사역에 불이 붙다.

- 1)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본격적인 양육과 훈련이 시작되었다.
 - 성경공부(BT), 제자훈련(DT), 리더훈련(LT), 새나모임(QT), 방학 특별새벽기도 정착
 - 양육된 청소년들이 전도하기 시작했다. (제자훈련 받은 청소년들은 100% 전도)
- 2)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학교 사역의 문을 열어 주셨다.
 - 당산중 점심예배, 관악고 점심예배, 선유고 기독교반 CA, 당산중 아침 QT모임
 - 학교와의 연계 사역도 진행되었다. (졸업음악회, 합창대회, 축제 등)
- 3) 무한초대 프로젝트, 다모임SUNDAY, 셀러브레이션 나이트 등의 전도행사가 기획되었고, 싱가포르 비전트립과 4주에 걸친 예배에 목숨을 걸라 CAMPAIGN을 통해서 예배의 분위기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
- 4) 청소년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새신자들이 영중등대를 찾았다.
- 5) 예배출석 인원이 늘어나면서 부득이하게 등대모임을 학년별 모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 2008년도(안정기) - 사역의 방향이 명확해지다.

- 1) 2008년 3월 2일(주일), 38명의 학교선교사를 학교로 파송하였다.
- 2) 사역자들의 헌신과 신우회 교사들의 도움으로 학교사역이 안정되고 더욱 활발해졌다.

- 3) 예배의 변화를 추구하며 감격과 회복이 있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었다.
 - 예배 전 30분 기도회 정착, 예배 시간은 1시간 40분으로 조정 (기존에는 2시간)
- 4) 9월부터 아프리카와 북한의 굿주리는 청소년들을 위한 매주일 성금 모금이 시작되었다.
- 5) 무한초대 프로젝트, 홈커밍파티, CGV예배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잃은 양들을 초청했다.

*** 2009년도(제2의 개척기) - 새로운 돌파구를 찾다.**

- 1) 담당사역자들이 전체적으로 교체되었다. (외부에서 사역자를 초빙하지 않았다.)
 - 자연스러운 인수인계와 후임사역자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 중요하다.
- 2) 기존의 사역들을 잘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역들이 기획되었다. (등대별 특송 등)
- 3) 학교사역의 확장 - 선유고등학교 목요예배, 당산중학교 기독교반 CA를 인도하게 된다.
- 4)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전도가 되고, 그 친구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친구들을 통해 영중등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 2010년도(제2의 전성기) - 신선한 기름으로 다시 불이 붙다.**

- 1) 부장선생님을 포함한 교사들의 변화와 교사모임의 안정
- 2) <무조건> <등대로> 라는 타이틀로 친구초청예배를 기획하였다.
- 3) 교사들이 헌신하면서 등대모임이 활성화 되었다.
- 4) 당산중 기타반 CA를 인도하게 되면서 학교사역이 확장되었다.
- 5) 새롭게 전도되어 오는 초신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 자연스럽게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청소년 사역의 부흥을 기대하며..>

1. 청소년 사역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전도하라

-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

한국교회 청소년부의 침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교단을 막론하고 해가 지날수록 청소년부 예배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들을 여기저기서 접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수많은 교회들이 청소년 사역에 실패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사역을 포기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떠나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듯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교회들의 청소년부 예배 출석 인원은 어른 예배 출석 인원의 10% 내외이다. 사실상 최근 들어서는 어른 성도의 10%만 모여도 청소년들이 잘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어른 성도가 1,000명 가까이 모이는데 반해 청소년부 예배는 20명이 모인다고 한다. (이것은 어떤 특수한 교회의 모습이 절대 아니다!) **청소년 전도는 더 이상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청소년 전도는 정말 시급하다. 청소년**

전도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온 힘을 다해 집중해야 하는 의무이다. 우리 교회의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정말 소망이 있는가?

전도하자! 전도가 없는 청소년부는 웅덩이에 고인 물이다. 곧 썩어 버릴 것이다.

2. 청소년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돌파구를 찾아라 -

1) 청소년 전도의 정답은 없다.

- 다른 교회에서는 안 되는 전도방법이 우리 교회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는 전도방법이 다른 교회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2) 일단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 준비하고 기도하느라 힘을 다 빼지 말고, 일단 현장으로 가봐야 한다. (특히 학교 앞)
-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학교 앞으로 한 번도 안 나가 본 사역자는 회개해야 한다.

3) 청소년 전도는 각 교회의 특성과 재정을 고려하여 진행 되어야 한다.

- 재정이 있어야만 전도하는 게 아님을 명심하자. (전도비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자)
- 화려한 전도축제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다. 각 교회와 부서의 재정에 맞는 방법을 기획하자! 다른 교회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도 말고, 경쟁하지도 말자.

4) 친한 친구의 관계 전도가 청소년 전도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 학생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하라. 단,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 학생들이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친구초청예배, 특별 이벤트 등)

5) 한 번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학생들을 다시 전도해야 한다.

- 학생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는 학생들을 잡지 않은 것이다.
- 한 번 교회에 나온 학생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 정기적으로 장기결석자들과, 한 번 출석이후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자.

6) 교인 자녀들을 전도해야 한다.

- 교인 자녀들 중에 청소년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찾아보라!!

3. 전도와 양육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

1) 새로운 학생이 전도되어 온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말라!

- 인원 늘리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음 주부터 안 올 확률이 더 높다.
- 몇 명이 전도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정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2) 새롭게 전도 되어 온 학생을 위한 사역이 시작되어야 한다.

- 새신자가 그 다음 주에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학생을 위한 신선한 사역이 준비되어 있는가?
- 사역자, 교사들이 관계를 맺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문자, 네이트온, 싸이월드, 손으로 쓴 편지, 가정심방, 학원심방, 정성이 담긴 선물 등)

3) 청소년부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양육하라!

- 분반공부 한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 아닌 특별한 양육이 있어야 한다.
- 제대로 양육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변화되고 분명히 전도한다.
-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역자도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

4. 영종등대(YJ. LIGHT HOUSE)는 이렇게 전도한다.

* 영종등대 예배 출석 인원의 변화					
2005년 1월	15명	2006년 1월	48명	2007년 3월	60명
2008년 10월	80명	2010년 1월	90명	2010년 8월(현재)	100명

1) 학교 앞 전도(노방전도)는 쉬지 않는다.

- 되든 안 되든 매주 1-2회씩 학교 앞에 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앞 전도를 한다.
- 학교 앞 전도는 우리 교회의 지속적인 홍보임을 기억하자!
- 전도지만 나눠주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말자.

2)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친구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 백인백색임을 기억하라. 한 명도 똑같은 애들이 없다.
- 사역자가 능력이 있고 시간이 있다면, 애들이 해 달라는 거 다 해 줘라!

3) 전도를 강조하는 공동체 분위기를 만들고, 지속적인 전도 메시지를 선포한다.

- 전도 메시지의 선포가 아이들의 마인드를 바꿔 놓는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자!
- 전도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사역자에게 먼저 전도의 불이 붙어야 한다.

4) 성경공부, 제자훈련을 통해 청소년 제자들을 양육시킨다.

-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은 청소년들은 분명히 전도했다. 지금까지 예외가 없었다.
- 지금도 주일 등대모임이 끝나고, 4개의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5) 예배, 전도, 양육, 영혼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 토요일 기도모임, 주일아침 기도모임, 금요철야기도회, 매일기도회, 특별새벽기도회

6) 친구 초청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새생명 FESTIVAL, 무한초대PROJECT“놀러와”, 셀러브레이션 나이트, 등대로, 무조건 등..

7) 학교와 연계하여 사역한다.

-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지만, 가장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한번쯤 꼭 도전해 보기를 권유한다.

5. 영종등대 학교 사역 소개

- 현재 3명의 청소년부 사역자들이 동역하면서 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 1) 당산중학교 화요 점심예배 인도 (2007년 3월부터)
- 2) 관악고등학교 수요 점심예배 인도 (2007년 5월부터)
- 3) 선유고등학교 목요 점심예배 인도 (2009년 3월부터)
- 4) 당산중학교 기독교반 CA (2009년 3월부터) - 1달에 1회 전일제 CA
- 5) 선유고등학교 기독교반 CA (2007년 3월부터) - 1달에 2회 2시간씩
- 6) 당산중학교 기타반 CA (2010년 3월부터) - 1달에 1회 전일제 CA

6. 학교로 들어가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열정 있는 사역자들을 위한 TIP!

1) 사역하고자 하는 인근의 학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 주변의 중고등학교를 찾아보고 가장 가까운 학교를 품고 준비하길 추천한다.
- 자신이 맡은 청년년부 학생들과 학교사역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일단 부딪쳐야 한다. (기독교사를 찾아서 먼저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다.)

-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기독교사는 반드시 있고 교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선생님이 기독교사인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교회와 학교의 협력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지속적으로 학교에 소개하라.

- 교회시설 이용, 장학금 지급, 특별활동 교사 지원, 학교 운동장 사용 등
-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교육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 지원이 필요하다.

4) 사역자가 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반 CA, 주중 예배(기도회), QT모임을 인도하라!

- 반드시 학교와 협의가 된 후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
- 비공식적으로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모임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 교회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의 은사를 활용해 CA를 인도하는 방법도 있다.

5) 기독교사들(신우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선생님들도 사역자의 열정과 성실성을 보면 감동을 한다.
- 가끔씩 선생님들에게 책이나 CD와 같은 선물들을 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학교로 들어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의외로 쉽게 학교와 연계할 수도 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열정을 품고 준비하면서 계속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신다.

6. 결 론: 내가 맡은 청소년부가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는가?

1. 조건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진실하게 헌신하며 항상 배우는 사역자가 되라.

- 정해진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역자의 기도와 리더십과 헌신이 필요하다.
- 항상 긍정적이어야 하고, 열정을 잃지 않아야 한다.
- 상처받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 모르면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정체 된다. (사역의 방법들에 많은 관심을 갖자)
- 할 수만 있다면 장기사역을 권장한다. (1년 하고 그만 둘 생각이면 시작도 하지 말자)

2. 학생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제자로 만들라.

- 성경공부, 제자훈련을 통해 학생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야 한다.
- 성경공부, 제자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 하면서 조금씩 범위를 확장해 가자.

4.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속적인 전도와 사역을 기획하고 시도하라.

- 사역자, 교사,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 사역도 못한다. 실패해야 배우니 걱정 말고 실패하라.

5. 사역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잡고 항상 기도하라.

- 지속적으로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하라.
- 사역자 자신이 복음 안에 거하며 사역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복음으로 무장하라.

6.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한 영혼의 변화에 목숨을 걸라.

- 마음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자.
-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 한다.
-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자.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과 사랑이 중요하다.

*** 청소년부 사역자들을 위한 필독서 및 추천도서**

(필독서)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새들백 교회 청소년 사역 이야기	덕 필즈	디모데
	월로우크릭 교회 청소년 사역	보 보셔스	두란노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처음 두 해	덕 필즈	디모데
	우리는 중고등부 부흥을 열망하고 갈망했다	유홍철	나침반
	육일약국 갑시다	김성오	21세기북스
	탱크목사 중고등부 혁명	홍민기	규 장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손현보	누 가
	일찍 도전하라	박현우	라이온북스

(추천도서)	책 제목	저자	출판사
	YY 부흥보고서	이찬수	규 장
	중고등부 전도의 광맥을 뚫어라	윤형진 외 7인	기독신문사
	청소년부 부흥의 광맥을 뚫어라	조성의	기독신문사
	청소년부 다시 세우기	최윤식	기독신문사
	교사십계명	하정완	나눔사
	파이프 목사의 청소년 부흥 이야기	임출호	요단출판사

TOUCH 5.

질의응답 및 Q&A

진행: 이충섭 목사 (의정부 승리교회 교육목사)